

# 두산, 3개 은행과 240억 규모 '동반성장펀드' 조성

## 택시의 추억

기업·산업·우리은행과 중소기업자 지원

두산은 서울 두산타워에서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과 함께 중소기업자 지원금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펀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4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는 두산이 120억원을 3개 은행에 나누어 예치하고 은행들도 1:1 매칭펀드로 재원을 마련한다.

두산은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협력사의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협력사는 기존에 적용 받던 금리보다 최대 1%p의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산은 이번 동반성장펀드의 지원 대상을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 3차 협력사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왼쪽부터) 우리은행 이봉우 본부장, 두산 민은식 동반성장 담당 상무, 산업은행 이해의 실장, 기업은행 김국종 본부장이 동반성장펀드 조성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산

각 은행은 두산이 추천하는 협력사에 10억원까지 R&D투자, 시설투자, 운영자금의 목적으로 대출 자금을 지원한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기지수첩

김재웅 (산업부)

어느 추운 날 밤 새벽 2시 종각역. 승차를 거부한 택시는 나를 매달고 한참을 달렸다. 급속을 알리는 굉음을 내면서 한 사람을 아스팔트 위에 내동미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주정 부리지 마세요” 뺑소니를 신고한 나에게 종로 경찰서 당직자는 이렇게 다그쳤다. CCTV를 보여주면서도 변호관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며, 신고를 취하하라는 협박(?)도 했다. 증언하겠다면 목격자가 남긴 전화번호도 목살했다.

택시 공포증이 생겼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대중교통이 없으면 걸었다. 혹여 택시를 타게 돼도 불신 때문에 조수석에 앉거나 대화를 건네지도 않았다. 늘 택시에 감사를 표하며 말동무를 자처하던 인격 하나가 죽은 셈이다.

‘쏘카’는 구세주 같았다. 요금을 더 내는 대신 추위에 떨며 팔을 흔들지 않아도 됐다. 탑승 정

보가 확실하게 남으니 혹여 위험을 당할 걱정도 없어졌다.

나만의 생각은 아니었으나 보다. 승차 공유 서비스에 제동을 건 정부에 비판 목소리가 이어진다. 과다 요금 청구를 비롯한 휴대폰 절도, 뺑소니 등 택시 피해 사례 고백도 늘었다.

택시 생존권은 중요하다. 택시 운전사도 소중한 국민들이다. 승차 거부 원인이 결국은 정책 실패로 인한 경쟁 심화와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일부 택시 사업주들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미명하에 특정 직업군을 말살해서는 안 될 노릇이다.

그러나 승차 공유 서비스가 택시를 죽인다는 건 억측이다. 쏘카는 소비자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고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쟁력만 갖춘다면 기본 요금 인상과 합승 등 택시업계 ‘숙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오히려 순기능도 기대된다. 승차 공유 서비스가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쁜’ 택시들과 회사들이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택시 업계의 묵은 때도 자연스레게 벗겨낼 수 있다.

/juk@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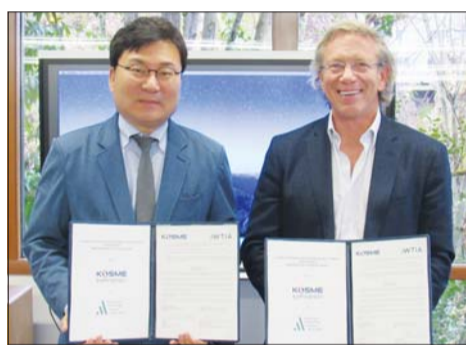
## 중진공, 워싱턴기술산업협과 우수 스타트업 발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미국 워싱턴기술산업협회(WTIA)와 우수 기술 스타트업의 엑셀러레이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마이클 슈츨러 워싱턴기술산업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 기술 스타트업의 멘토링, 코칭 등 엑셀러레이팅 ▲기술혁신 세미나, 컨퍼런스 등 공동 개최 ▲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지원 등을 위해 노력

하기로 했다. 1984년에 설립된 워싱턴기술산업협회는 1000여개 기업이 상호 교류·협력하는 비영리단체로 50여명의 직원이 ▲스타트업 지원 ▲기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포럼 개최 ▲투자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리 스타트업이 시애틀의 창업 생태계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넥스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왼쪽)과 마이클 슈츨러 워싱턴기술산업협회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오늘의 운세 11월 15일 (음 10월 1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 48년생 가려운 곳을 친구가 긁어준다. 60년생 노후대비로 지금 걸어야 내일 뉘지 않는다. 72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다. 84년생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떠 있음을 명심.
37년생 귀여운 자손의 방문이 있다. 49년생 자존심이 상해도 거절하지 못한다. 61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73년생 자식에게 기쁜 일이 찾아오니 마음이 즐겁다. 85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나는 날.
38년생 한방중에 비단옷 입고 활보하는 격. 50년생 유혹이 많으니 중심을 잘 잡자. 62년생 성공이 지척이니 마음이 바쁘다. 74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두 배로 나간다. 86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이 생기니 한 단계 상승.
39년생 서두르지 말고 느긋하게 행동. 51년생 귀인을 만나 장기투자를 결정. 63년생 대인관계는 마음먹은 대로 직진. 75년생 지치고 피곤한 날이나 배우자의 도움으로 충전이 된다. 87년생 강물이 바다로 진출하니 막힌 것이 뚫린다.
40년생 다정다감 병이나 상대에게 지나친 간섭을 마라. 52년생 이해를 바라지 말고 자신을 각인시켜라. 64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잇는 법이니 마음을 비워라. 76년생 후배가 치고 올라오니 서글프다. 88년생 미뤄뒀던 일을 하자.
41년생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심정. 53년생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변명만 보인다. 65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쪼개지는 법이니 꾸준히 노력. 77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아쉬울 때가 있는 법. 89년생 거품이 사라지고 냉혹한 현실에 직면.
42년생 공들인 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54년생 친구의 병문안 갈 일이 있다. 66년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선물이 들어온다. 78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않는 법. 90년생 망설임은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주니 결단.
43년생 자식이 나보다 열 배는 훌륭하다. 55년생 하루가 지루하니 영화라도 감상. 67년생 변화의 운이오니 새로운 일에 도전. 79년생 투기와 투자의 개념을 잘 파악하고 행동. 91년생 중요한 일은 반드시 메모하고 조심스럽게.
44년생 무지개가 펼쳐지니 재물이 들어온다. 56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의 거래가 순조롭다. 68년생 입이 경솔하면 주변이 시끄럽다. 80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으니 먹는 것에 주의. 92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전체이익을 가져온다.
45년생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난 격. 57년생 분실 수가 있으니 사람 많은 곳은 조심. 69년생 가족 간의 말다툼은 피하는 것이 상책. 81년생 과대표장은 상대방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93년생 길 떠나려는 데 신발 끈이 풀려 지체.
46년생 격한 언쟁으로 서로에게 피해. 58년생 굴치 아픈 일이 오후에 해결. 70년생 아직은 꿈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82년생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양쪽 모두 잃을 수 있음. 94년생 초대한 손님은 손님이 되오니 기쁨이 넘친다.
47년생 입안의 허쳐루는 사람을 조심. 59년생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이 필요 하다. 71년생 친구와 다툼이 생기니 돈으로 체면이 구겨질까. 83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규칙적인 운동을 해라. 95년생 근거 없는 칭찬에 휘둘리지 말아라.



## 김상희의四季

### 도시에서의 물과 풍수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이미 수천 년 전에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말했다. 사람은 먹을 것이 한 달을 버틸 수 있지만 물 없이는 3일을 넘기지 못한다고 한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사람이 기거할 곳을 찾는 풍수에서도 역시 물은 의미가 매우 크다. 다들 아시다시피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이 보이는 곳 물과 잘 어울리는 곳에 집짓기를 원한다.

전원주택을 짓는다면 물을 들이기가 훨씬 수월하다. 주변의 개울이나 계곡 또는 강을 풍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에 거주한다면 물을 풍수로 활용하기 힘들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의 대안으로 수조나 어항 물고기를 풍수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에 풍수를 고려할 수조를 놓을 때는 동쪽이나 북쪽을 좋은 방향으로 여긴다. 높이도 무조건 큰 것보다 1m 안팎이 좋다.

위치도 너무 높은 곳에 자리 잡지 않아야 한다. 물을 담아놓은 어항은 크기가 작아도 물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대체재로 많이 사용한다. 분재 역시 물의 대체재로 효과가 좋다. 촉촉이 물은 머금고 뿜어내는 형태로 집이나 사무실의 한쪽에 놓으면 좋다.

어항 속에 담아놓은 돌맹이 역시 물과 어우러져 풍수의 효과를 발휘한다. 도시에서 이런 대체재를 사용하는 것은 물을 보는 게 근본적으로 힘들어서이다. 그렇다고 재물을 상징하는 물의 풍수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경제적인 문제는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 아닌가.

도시엔 물이 없어도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방법은 다양하니 각자에게 유용한 대안을 찾으면 된다. 대안으로 재물을 불러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 더구나 재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풍수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적은 노력으로 집안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면 농치기 가까운 선택일 것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x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Sudoku grid 1: 4x9 grid with numbers 1, 4, 8, 5, 9, 6, 4, 5, 8, 9, 8, 9, 6, 5, 2, 9, 9, 1, 7, 8, 9, 5, 2, 6, 8, 7, 1, 9.

Sudoku grid 2: 4x9 grid with numbers 9, 5, 4, 7, 6, 1, 7, 8, 3, 4, 6, 9, 1, 9, 8, 7, 9, 1, 6, 8, 5.

### 스도쿠 정답

Sudoku solution grid 1: 4x9 grid with numbers 5, 6, 1, 2, 8, 9, 4, 8, 6, 7, 9, 5, 2, 1, 9, 2, 1, 5, 8, 4, 1, 7, 6, 5, 8, 9, 4, 1, 2, 6, 7, 2, 7, 4, 5, 9, 6, 1, 8, 1, 6, 5, 7, 8, 2, 9, 5, 4, 6, 1, 5, 2, 8, 1, 4, 7, 8, 9, 1, 9, 2, 8, 1, 7, 6, 5, 2, 8, 7, 9, 6, 5, 1, 2, 4, 2.

Sudoku solution grid 2: 4x9 grid with numbers 5, 8, 4, 7, 9, 6, 2, 1, 7, 9, 1, 6, 2, 8, 4, 5, 9, 6, 2, 1, 8, 5, 4, 9, 9, 4, 5, 2, 1, 7, 8, 2, 6, 9, 1, 7, 5, 5, 2, 4, 1, 7, 5, 2, 9, 5, 8, 6, 1, 7, 6, 1, 9, 2.

문제 제공= 보누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432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27호